

갈등사회 속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agonism)의 정치윤리*

- 코놀리와 몰트만을 중심으로

이사도 (동송교회 부목사)

I. 들어가는 말

II. 코놀리 아고니즘

1. 정체성/차이와 신념 내부의 악의 문제
2. 정동과 공명기제
3. 심층 다원주의의 시민덕목

III.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신학적 재구성

1.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신학적 자원
2.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세 형식
3. 몰트만 정치신학과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신학적 검증

IV.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정치윤리적 실천

1. 타자 존중의 아고니즘
2. 공적 연대의 아고니즘
3. 자기검증의 아고니즘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5.13>

* 본 논문은 필자의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agonism)을 기반으로 한 정치신학의 재구성,”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글이다. 또한 본 글은 원어 표기법이 등장하는 관계로 그리스어 “ἀγών”(아곤)은 “agon”으로, “ἀγωνία”(아고니아)는 “agonia” 또는 “agony”(아고니)로, “ἀγορά”(아고라)는 “agora”로, “ἀγωνίζομαι”(아고니조마이)는 “agonizomai”로, 히브리어 “מִשְׁפָּט”(미쉬파트)는 “mishpat”로 전사함을 일러둔다.

• ABSTRACT •

The Political Ethics of Christian Agonism in a Conflictual Society:
In Dialogue with Connolly and Moltmann

Associate Pastor, Lee, Sado (Dongsoong Presbyterian Church)

This study explores Christianity's public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in contemporary conflictual society and proposes Christian agonism as a politico-ethical model toward this end. Taking Connolly's agonism as a critical interlocutor, the study analyzes the process through which conflict is organized antagonistically through identity/difference, evil within faith, affect, and resonance machines, and theologically reconstructs the multilayered meanings of the Greek term *agon*.

Christian agonism consists of three forms: agon-agon, in which one contends responsibly with the other; agora-agon, which organizes public solidarity and participation; and agony-agon, which endures suffering and self-examination for the other. By testing these three forms through Moltmann's political responsibility, eschatology of hope, and Trinitarian theology of the cross, this study proposes a political ethic through which Christianity may remain faithful to its own faith while existing as a responsible neighbor in a pluralized democratic society.

Key words: Christian Agonism, Political Ethics, Agonistic Respect,
Resonance Machine, Self-Examination

I. 들어가는 말

현대 민주사회는 서로 다른 신념과 정체성, 삶의 경험과 필요가 충돌하는 복합 갈등사회이다. 이러한 갈등은 합리적 대화나 절차적 합의만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과 요구는 공적 논의와 제도적 틀봄에서 배제되고, 어떤 차이는 자신을 표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공동체에 의해 규정된다. 아고니즘(agonism)은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된다. 아고니즘은 경쟁·투쟁 등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아곤(*agon*)에 기초한 이론으로, 갈등을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조건으로 이해하고 합리적 합의(*consensus*)만으로는 공적·정치적 삶을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해소되지 않은 갈등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겨룰 수 있도록 정치적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이론이다.¹⁾ 이런 의미에서 아고니즘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갈등을 책임 있게 다루고 공존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가는 하나의 정치적 “관문”(portal)으로 이해될 수 있다.²⁾

아고니즘의 관점에서 현대 민주사회 속 시민들의 아곤은 제도정치가 외면하거나 지연시킨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고통과 요

1) 아고니즘의 정치는 정당·의회정치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적 결사와 사회운동, 집회·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에서 담론·예술·미디어와 같이 정동과 감수성에 작용하는 다양한 공적 개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개될 수 있다.

2) 캐서린 켈러(Catherine Keller)는 서로 “얽힌 차이”(entangled difference) 속에서 가능성이 확장되는 지점을 “관문”(portal)으로 표현한다. Catherine Keller, “Spiritual Foundations of One World,” contribution to GTI Forum “Can Human Solidarity Globalize?,” Great Transition Initiative (August 2021), 2; 필자와의 대화에서는 아고니즘을 차이들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 속에서의 협력과 보다 강하고 장기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넓혀 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설명하였다. Catherine Keller, 필자와의 대화, “2026 ICKC International Conference: Political Theology in the Hyperlead Age of AI as Political Actor” (연세대학교, 2026년 5월 22일).

구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법과 제도가 억울한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때 시민들의 집회와 결사는 배제되거나 지연된 문제를 표면화하고 제도정치의 응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적 아곤은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활력을 이끄는 정치적 에너지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집단행동은 양가적이다. 그것은 권력의 오만을 견제하고 지연된 정의를 촉구하며 억울한 자들의 고통을 공론화할 수 있지만, 진영논리와 원한의 정동(affect)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대의정치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시민들의 집단행동은 그것을 깨우는 동력이 되지만, 시민들의 정동이 적대의 공명기계(resonance machine)³⁾ 속에서 증폭될 때, 대의정치 역시 그 적대적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다. 따라서 시민적 아곤이 어떠한 신념과 내재적 질서, 정치적 정동에 의해 조직되고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윌리엄 코놀리(William E. Connolly)가 지적하듯, 정치의 문제는 갈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수행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⁴⁾

3) William E. Connolly, *Capitalism and Christianity, American Styl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39-67; William E. Connolly, *Plur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1-3. 코놀리는 사회·정치적 흐름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 형성되기보다 종교적 신념,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념과 전략, 정동적 성향 등이 서로 공명하고 증폭하면서 형성된다고 본다. “공명기계”는 이러한 자기증폭적 정치문화 구조를 뜻한다. 작은 진동이 다른 진동을 만나 더 큰 진동으로 증폭되듯이, 서로 다른 요소들의 혼합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성향과 힘을 강화하여 개별 요소들의 합을 넘어서는 집합적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공명기계는 태엽인형(windup doll)처럼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체계라기보다 서로 다른 요소들의 공명이 누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명기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조종자를 찾기보다 무엇이 무엇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공명이 공포, 불안, 원한, 적대감, 복수심, 극단적 특권의식 등에 의해 움직일 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정상·악·위험으로 규정하고, 아곤적 존중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회방하는 “어두운 공명기계”로 작동할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II장에서 이어진다.

4) William E. Connolly, *The Augustinian Imperative: A Reflection on the Politics of Morality*, 2nd ed.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28-29.

현대 갈등사회 속 원한과 적대의 공명에 그리스도교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곧 그리스도교 내부를 향한다. 그리스도교는 때때로 자신과 다른 신념과 정치적 입장, “삶의 정황”(Sitz im Leben)을 비정상성·위협·악으로 규정하고 신앙의 순수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일로 배제를 정당화해 왔다. 또한 특정 이념과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현상 유지”(status quo)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교의 공적·정치적 행동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이 지적하듯 “무정치적(a-politisch)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⁵⁾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는 정치적 결사와 투쟁뿐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 기존 질서의 무비판적 수용, 내재된 질서에 따른 세계 해석을 통해서도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갈등사회 속 그리스도교의 사유와 실천을 움직이는 신념과 정동을 살피고 그 정치적 책임성을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묻는 정치신학 작업이 요청된다.

본 논문은 다원화된 민주사회 속 한 부류의 신념공동체로서 그리스도교의 공적·정치적 책임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철학의 아고니즘을 신학적으로 전유하여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Christian agonism)이라는 정치윤리적 실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코놀리의 문제의식에 주목하여 현대사회의 갈등이 정체성/차이의 관계, 신념 내부의 악, 정동과 공명기제를 통해 적대적으로 조직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성서와 교회사에 나타난 아곤의 의미를 검토하고, 그 다층성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아곤-아곤”(agon-agon), “아고라-아곤”(agora-agon), “아고니-아곤”(agony-agon)의 세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다음으로 이것이 단순한 투쟁이나 자기정당화의 모델로 변질되지 않도록 몰트만 정치신학을 통해 검증하고,

5)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Politische Ethik*, 박종화 역, 『정치신학 정치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63-64.

이를 바탕으로 타자 존중, 공적 연대, 자기검증의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을 정치윤리적 실천 모델로 제안하고, 이미 정치적인 그리스도교의 사유와 실천을 이웃 사랑의 공적 책임과 시민적 실천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II. 코놀리 아고니즘⁶⁾

1. 정체성/차이와 신념 내부의 악의 문제

코놀리에게 민주주의는 차이가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적 매체인 동시에 정체성이 자신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⁷⁾ 코놀리는 이러한 조건에서 갈등이 정체성/차이, 신념, 정동, 공명기계의 차원에서 구성되고 증폭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정체성/차이의 관계가 적대(antagonism)에서 아고니즘(agonism)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모색한다.⁸⁾

코놀리에 따르면 정체성은 자신을 구성하는 차이에 의존하지만, 그 차이는 정체성이 확립한 질서와 규정의 불충분함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

6) 윌리엄 코놀리는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정체성/차이의 관계가 적대로 고착되지 않고 아곤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모색한 정치이론가이다. 그의 아고니즘에는 고대 그리스의 아곤을 재해석한 니체의 사유가 중요한 사상적 자원으로 자리한다. 김도윤은 코놀리의 사상적 원천을 니체에서 찾고, 켈러는 렌 힐리스(Wren Hillis)의 기술을 토대로 코놀리가 니체적 패러다임에 강하게 이끌리며 “실존적 고난과 분노·원한에 폭넓게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상엽은 니체의 “모든 사유의 핵심에 시종일관 아곤, 즉 경쟁이 있다”며 아곤을 그의 사유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파악한다. 김도윤, “니체주의적 경합적 민주주의는 상탈 무폐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시대와 철학』 34/4(2023), 45; Catherine Keller, *Political Theology of the Earth: Our Planetary Emergency and the Struggle for a New Public*, 박일준 역, 『지구정치신학: 지구적 비상 사태와 새로운 생태신학의 전환점을 위한 투쟁』(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2020), 74, 각주 18; 이상엽, “니체와 아곤의 교육,” 『철학논총』 73/3(2013), 215.

7) William E. Connolly, *Identity/Difference: Democratic Negotiations of Political Paradox*, expanded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x.

8) 위의 책, 178.

한다.⁹⁾ 그러한 갈등은 이미 확립된 정체성들 사이뿐 아니라, 기존 정체성과 새롭게 출현하여 인정과 변화를 요구하는 차이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의 충돌이 아니라 신념과 정동, 삶의 감각과 존재론적 전제들이 뒤얹혀 형성되는 존재-정치적(onto-political) 현실이다. 이처럼 각 정체성이 “자신을 분명히 표명하기 위해”(enunciate itself) 차이에 의존하며 그 차이와의 경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코놀리에게 정치의 문제는 “경합할 것인지의 여부”(if)가 아니라 그 경합을 “어떻게”(how) 조직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¹⁰⁾

갈등이 정체성/차이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경합의 형식으로 조직될 때 민주적 아고니즘이 가능하지만, 정체성이 차이의 도전을 자신의 존재와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때 갈등은 적대적 관계로 전환된다. 코놀리는 이 과정에서 “르상티망”(ressentiment)이 정동적 동력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그는 니체를 따라 인간이 죽음, 고통, 시간의 비가역성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견디지 못할 때 그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욕망을 품는다고 설명한다.¹¹⁾ 르상티망은 이러한 실존적 불안과 무력감을 타자에게 전가하여 그를 고통과 실패의 원인으로 구성하는 “응고된 성향으로서의 원한” 또는 “실존적 복수심”이다.¹²⁾ 이러한

9) William E. Connolly, *The Augustinian Imperative*, 28.

10) 위의 책, 28~29; 코놀리는 합의(consensus)를 포함한 정치의 핵심 개념들이 가치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합의 대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치적 논쟁을 이성적으로 최종 해결(definitive resolution)하는 것은 대체로 불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갈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전제와 판단 기준을 돌아보며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William E. Connolly, *The Terms of Political Discourse*, 2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3-4.

11) Mark Wenman, *Agonistic Democracy: Constituent Power in the Era of Globalis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00; William E. Connolly, *Capitalism and Christianity, American Style*, 51-52, 57; Friedrich Nietzsche, *Thus Spoke Zarathustra*,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1966), 99, 140; William E. Connolly, *Capitalism and Christianity, American Style*, 51에서 재인용.

르상티망이 정체성/차이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활성화될 때, 정체성은 차이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과 자기 정체성의 불완전성을 부인하고, 차이를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도덕적 결함이나 악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을 강화한다. 이로써 차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수정하는 아고니즘의 정치는, 이미 확립된 정체성과 질서를 절대화하고 차이를 배제함으로써 내부의 동일성을 공고히 하는 적대적 “동일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로 변질될 수 있다.

코놀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신념의 영역에서 구체화한다. 그는 신념이 자기 확실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신념과 삶의 형식을 신성모독·이단·악·불신앙의 범주로 규정하여 자기 동일성을 공고히 하려는 경향을 “아우구스티누스적 유혹”(Augustinian temptation)으로 포착한다.¹³⁾ 그리고 이러한 유혹이 근본주의적·교조주의적 경향에서 두드러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특정 종교 전통에 한정하지 않고 세속주의와 무신론, 철학과 정치이념을 포함한 신념 일반에 내재할 수 있는 “신념(faith) 내부의 악의 문제”로 확장한다.¹⁴⁾ 코놀리에게 악은 신념공동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타자를 배제하고 교정하려는 신념 내부의 욕망에서도 발생한다.¹⁵⁾

12) William E. Connolly, *Capitalism and Christianity, American Style*, 51-52, 57.

13) William E. Connolly, *The Augustinian Imperative*, xviii, 145. 코놀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업적을 존중하면서도 그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신념을 존중했지만, 진리를 확신한 뒤에는 다른 신념에 배타적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배타성이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모든 신념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아우구스티누스적 유혹”이라 부른다.

14) William E. Connolly, *Pluralism*, 4, 19; William E. Connolly, *The Augustinian Imperative*, 29. 코놀리에게 “faith”는 종교적 신앙에 한정되지 않고, 무신론·세속주의·철학·정치이념을 포함하여 존재와 세계에 관한 궁극적 전제와 실존적 확신을 가리킨다. 본 논문은 이를 원칙적으로 “신념”으로 번역하고, 그리스도교 고유의 신앙과 그 실천을 서술할 경우, “신앙”으로 표기한다.

15) William E. Connolly, *Pluralism*, 19.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명목 아래 차이를 도덕적 결합과 위협으로 번역해 온 ‘신앙 내부의 악’이 자신에게도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과 질서가 어떠한 배제와 희생 위에 형성되었는지 그 “은폐된 희생 제의”의 흔적을 추적해야 하며,¹⁶⁾ 이러한 자기비판마저 새로운 도덕적 우월감과 배제의 논리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배제가 불안과 원한의 정동 및 여러 사회적 요소와 결합하여 집합적 적대로 증폭되는 과정에도 주목해야 한다.

2. 정동과 공명기계

코놀리에게 낯선 신념과 삶의 방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혐오와 원한의 정동으로 굳어지고 타자를 공동체의 질서와 순수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구성하는 동일성의 정치로 조직될 수 있다. 이때 르상티망의 정동은 개인적 원한을 넘어 서로 다른 신념과 이해관계, 제도와 담론을 가로질러 순환하면서 집합적 적대를 조직하는 정동적 동력으로 작동한다. “어두운 공명기계”(dark resonance machine)는 이러한 정동이 종교적 신념,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념, 미디어 담론, 국가주의적 상상력과 상호 공명하고 강화되면서 집합적 적대로 증폭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예컨대 매카시즘(McCarthyism)은 단순한 이념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애국주의, 제도적 판단과 언론 프레임이 서로 공명하여 특정 집단을 공동체의 적으로 구성한 동일성의 정치적 증폭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16) William E. Connolly, *Identity/Difference*, x.

17) William E. Connolly, *Pluralism*, 1-6; 매카시즘(McCarthyism)은 1950년대 미국에서 공산주의자 색출을 명목으로 펼쳐진 불공정한 조사 방법의 정치적 탄압이다. 코놀리에 따르면, 이는 당대 미국 사회의 “영화 산업, 국무부, 노동계, 교수진 등을 공산주의의 온상”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했던 강력한 정치 탄압 운동이었다. *The Random House*

코놀리가 분석한 “복음주의-자본주의 공명기계”(evangelical-capitalist resonance machine) 역시 이러한 공명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것은 미국 복음주의 우익, 시장근본주의적 자본주의, 공화당 정치, 미디어 등이 서로 다른 신념과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특권의식”과 “실존적 복수” 등의 “영성적 친화성”(spiritual affinities)을 통해 서로의 성향을 강화하고 증폭시키며 형성한 정치문화적 결합체를 의미한다.¹⁸⁾

이처럼 공명기계가 정동을 집합적으로 증폭시키는 방식은 코놀리의 “열망적 파시즘”(aspirational fascism)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그는 민주주의 내부에서 적대적 정동과 정치적 성향들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파시즘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치적 열망을 보여준다. 특히 코놀리는 이 과정에서 “정동적 전염”(affective contagion)이 문화적 삶의 “본능적 층위”(visceral register)에 작용하는 방식에 주목한다.¹⁹⁾ 반복되는 언어와 이미지, 표정과 몸짓, 구호와 적대적 표적 설정은 불안을 특정 집단을 향한 분노로 전환하고, 그러한 반응을 몸에 밴 정동적 습관으로 굳힌다.²⁰⁾ 이러한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시사영어사/랜덤하우스영한대사전편찬위원회 편, 『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1991), 1410; William E. Connolly, *Aspirational Fascism: The Struggle for Multifaceted Democracy under Trumpism* (Kindle Edi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7), 11.

18) William E. Connolly, *Capitalism and Christianity, American Style*, 39-57. 코놀리가 말하는 “복음주의”는 낙태, 줄기세포 연구, 동성결혼 등의 문화정치적 쟁점, 다문화적 다양성의 확대, 9·11 이후 이슬람과의 적대, *Left Behind*에서 나타나는 휴거와 심판, 구원받은 자와 남겨진 자의 구별과 같은 특수한 종말론적 감수성 등이 특권 의식과 타자를 향한 원한·복수의 정동과 결부되면서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미국 복음주의 우익을 가리킨다. 물론 그는 이러한 성향을 복음주의 신앙 자체의 필연적 결과로 보지 않으며, 복음주의 내부의 다른 의견과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주목한다. 한편 다른 한 축은 그가 “카우보이 자본주의”(cowboy capitalism)라고 부르는 미국 자본주의의 한 흐름으로, 경제적 탐욕과 결합된 호전성(bellicosity)과 극단적 특권 의식, 미래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경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19) William E. Connolly, *Aspirational Fascism*, 19.

20) 위의 책, 5-7, 15-18. 코놀리는 *Aspirational Fascism*에서 트럼프주의를 나치즘과 동일 시하지 않으면서도 양자 사이의 친화성을 분석한다. 그는 트럼프를 “열망적 파시스트”

정동은 이후의 사건과 주장을 해석하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명기계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구성하는 신념과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동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언어와 이미지, 미디어와 제도, 결사체와 정동적 전염의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러한 분석 틀에서 한국적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적 상황 역시 지역감정과 진영논리를 활용한 정치적 선동, 가짜뉴스, 반공주의적 기억, 세대적 불안 및 경제적 박탈감, 그리고 온라인 정동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증폭되는 복합적 공명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요소들이 일부 교회의 근본주의적·문자주의적 신앙 언어나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결합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를 선·악의 도식으로 환원하여 설교와 정치집회 등을 통해 원한과 적대의 정동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때, 특정 집단은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그들’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가만이 아니라, 어떠한 공명구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혐오와 원한의 정동을 어떻게 생산·유통·증폭하는지를 분별하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코놀리의 분석은 본 연구의 정치신학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역시 어두운 공명기계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거나, 신앙의 언어와 실천을 통해 그러한 구조를 정당화하고 증폭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놀리에게 공명 자체가 반드시 적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부정적 공명에 맞서 관계적 존중과

로 규정하고 그 특징으로 “군중의 숭배, 초공격적 민족주의, 백인 승리주의,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법-질서 체계 및 군사주의를 추구하며, 자신이 조장하는 거대한 거짓말들(big lies)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짜뉴스를 반복하고 반대자들을 증상하는 수사학적 방식”을 제시한다. 위의 책, 7; 코놀리는 이러한 파괴적 정동에 맞서 말과 글, 이미지와 몸짓, 공감 등의 매개를 통해 신체적·정동적 충위에 개입하여 “창조적 수용성”(creative receptivity)과 “긍정적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대안적 공명을 제안한다. 위의 책, 5.

미래에 대한 책임 등의 감수성을 연결하고 증폭하는 “대항(counter)-공명 기계”와 “긍정적(positive) 공명기계”의 가능성도 모색하기 때문이다.²¹⁾ 이러한 가능성 또한 책임적이고 긍정적인 정동적 공명 형성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정치윤리적 과제로 이어진다.

3. 심층 다원주의의 시민덕목

코놀리는 정체성/차이가 적대로 조직되고 부정적 공명이 증폭되는 문제에 대응할 실마리를 다원주의에서 찾는다. 그는 이미 확립된 정체성들의 병렬적 공존을 넘어, 새롭게 출현하는 차이에 응답하는 “심층·다차원적 다원주의”(deep, multidimensional pluralism)를 제안한다.²²⁾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새로운 정체성·권리·운동이 출현하는 “되어감의 정치”(politics of becoming)와 맞물려 있다.²³⁾ 코놀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신념의 다원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삶의 여러 영역으로 확장하고, 한 영역에서의 다양성 확대가 다른 영역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다원화를 모색한다.²⁴⁾ 이에 따라 심층 다원주의는 상호의존적인 시민 집단들이 차이와 긴장 속에서도 공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다원화의 에토스를 요청한다. 이러한 심층 다원주의의 구상은 그리스도교 역시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여러 신념공동체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의 신앙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시민 집단들과 관계를 맺

21) William E. Connolly, *Capitalism and Christianity, American Style*, 56, 58-59.

22) William E. Connolly, *Pluralism*, 30, 59-67.

23) 위의 책, 121-127.

24) 위의 책, 5-7, 61. 코놀리의 심층 다원주의에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다원주의적 우주론과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시간과 되어감에 대한 이해가 철학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코놀리는 이들의 사유를 자신의 양원적 지향과 연결하며, 서로 다른 신념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여의 에토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들이 전제하는 “초월적 힘들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한다.

고 공적 책임과 시민적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된다.

이러한 심층 다원주의를 정치적 관계 속에서 수행하기 위해, 코놀리는 “양원적 지향”(bicameral orientation)의 시민성을 요청한다. 이는 자기 신념에 충실하면서도 둘 이상의 관점과 삶의 세계에 자신을 열어 두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시민적 태도이다.²⁵⁾ 여기에는 자기 신념 역시 다른 신념들과 마찬가지로 “비교가능 경합성”(comparative contestability)에 놓여 있다는 자각이 내포된다.²⁶⁾ 자신의 신념이 자신에게 확고한 삶의 근거와 윤리적 동기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을 모든 시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 보편적 근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타자의 신념을 시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념도 동일한 경합에 놓여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변화될 가능성과 경합의 조건에 “깊은 원한 없이” 응답해야 한다.²⁷⁾

코놀리는 이러한 시민적 지향을 구체적인 정치적 관계 속에서 수행하게 하는 덕목으로 “아곤적 존중”(agonistic respect)과 “비판적 응답성”(critical responsiveness)을 제안한다.²⁸⁾ 먼저 “아곤적 존중”은 이미 문화적으로 인정받아 “존재함의 영역”(register of being)에 자리 잡은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 시민 집단들 사이에 요청되는 덕목으로, 차이가 완전히 해소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차이를 제거하거나 환원시키지 않은 채 관계와 경합을 지속하려는 태도이다.²⁹⁾

코놀리는 이러한 태도를 니체적 “거리의 파토스”(pathos of distance)를

25) 위의 책, 4-5.

26) 위의 책, 123.

27) 위의 책, 4, 123; William E. Connolly, *The Augustinian Imperative*, xxi-xxii.

28) William E. Connolly, *Pluralism*, 125-126.

29) William E. Connolly, *Pluralism*, 123-125; William E. Connolly, *Identity/Difference*, xxvi.

통해 설명한다. 그에게 거리의 파토스는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애착”(attachment)으로 민주적으로 전유되며, 이 애착은 “다툼 속에서의 절제”(forbearance)와 “상호의존 속에서의 관대함”(generosity)의 형태를 취한다. 아곤적 존중은 이러한 거리의 파토스를 “경합, 협력, 헤게모니”의 민주적 관계 속에 포함함으로써, 차이를 가로질러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에토스이다.³⁰⁾ 이러한 감수성은 자아 안에서 순환하는 차이에 대한 “감응”(attunement)에서 형성될 수 있다. 자기 안의 차이에 대한 감응은 자신이 아닌 존재에 대한 “공감”을 낳을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³¹⁾ 이에 기초한 아곤적 존중은 자신의 신념이 타자에게 질문받는 “고통을 감내하고”(absorb the agony), 서로에 대한 존중의 관계 안에서 신념을 비교하며 “아곤적 경합을 포함한다”(fold agonistic contestation).³²⁾ 즉 차이를 제거하거나 동일성으로 환원하지 않은 채 서로의 신념에 질문하고 경합하는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양원적 지향의 시민덕목이다.

“비판적 응답성”은 아직 정당한 자리를 얻지 못한 새로운 정체성 · 운동 · 사건 · 요구가 출현하는 “되어감의 정치”에 요청되는 시민덕목이다.³³⁾ 그것은 새로운 요구를 성급히 판단하거나 배제하기보다 “잠정적 수용성”(presumptive receptivity)을 가지고 그것이 드러내는 고통과 요구에 먼저 귀를 기울이되, 그 요구가 다원주의의 영성을 “촉진하는지 혹은 억제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별하는 태도이다.³⁴⁾ 이러한 태도는 “인정 · 정의 · 의무 · 권리 · 정당성의 영역”에서 아직 자리를 얻지 못한 집단의

30) William E. Connolly, *Political Theory and Modernity*, 2nd e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195-196.

31) 위의 책, 195.

32) William E. Connolly, *Pluralism*, 123-125.

33) 위의 책, 126.

34) William E. Connolly, *Identity/Difference*, xxvi-xxix.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우선적으로 관대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³⁵⁾ 그러나 이것은 새로움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판단 기준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차이를 배제해 온 “문제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기준을 유지하며 어떤 기준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할지를 분별하는 창조적 사고를 요구한다.³⁶⁾

이러한 점에서 아곤적 존중과 비판적 응답성은 공적 협상과 더불어, 개인과 공동체 안에 굳어진 감정과 이를 해석하고 판단해 온 개념,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하여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에토스의 배양(cultivation)을 요청한다.³⁷⁾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공적·정치적 삶에도 중요한 과제를 제기한다.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명하되, 그것이 타자를 비정상·악·공동체의 위협으로 번역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강제적으로 보편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덕목은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신앙에 신실하면서도 다른 신념들과 함께 질문받고 경합하며, 다른 시민 집단들과 공존하고 협력하는 책임 있는 이웃으로 존재하기 위한 정치윤리적 조건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코놀리는 정체성/차이의 관계와 신념 내부의 악, 정동과 공명기계가 갈등을 르상티망과 적대의 정치로 조직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심층 다원주의의 속 양원적 지향성을 가진 시민들의 아곤적 존중과 비판적 응답성의 덕목을 통해 차이와 공존하는 정치적 에토스를 모색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리스도교를 다원화된 민주사회 속 한 부류의 신념공동체로 위치시키고, 그 신념에서 비롯된 사유와 정동, 실천이 시민

35) William E. Connolly, *Pluralism*, 126.

36) 위의 책, 126-127. 코놀리의 비판적 응답성은 “베르그송, 제임스, 니체, 달라이 라마(Dalai Lama)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윤리·정치적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 창조적 수용성”(creative receptivity)을 자원으로 삼는다.

37) 위의 책, 126.

적 관계와 공적·정치적 삶에 어떠한 정치윤리적 효과를 낳는지 살펴볼게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교가 타자와 책임 있게 공존하고 연대하기 위한 정치윤리적 자원을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모색한다.

III.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신학적 재구성

코놀리의 문제제기는 그리스도교가 자기 신앙 안에 내재한 적대화의 가능성과 자신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동적 공명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요청한다. 이에 본 장은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에 나타난 아곤의 의미를 검토하고, 코놀리 아고니즘과의 연관 속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전유하여 오늘의 갈등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감당해야 할 정치윤리적 책임의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신학적 재구성 작업은 바울의 신학적 작업에 기초한다. 아곤은 현대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일 뿐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삶을 “선한 싸움”으로 표현하기 위해 신학적으로 수용하고 변형한 언어이기도 하다(딤후 6:12; 딤후 4:7). 빅터 피츠너(Victor C. Pfitzner)의 분석을 따르면, 바울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 and 탁월성을 추구했던 그리스적 미덕의 아곤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며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경건의 아곤”(agon of piety)으로 변용하였다.³⁸⁾

38) Victor C. Pfitzner, *Paul and the Agon Motif: Traditional Athletic Imagery in the Pauline Literature* (Leiden: E. J. Brill, 1967), 190.

1.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신학적 자원

1) 다층적 의미 구조로서의 아곤

일반적으로 경쟁·투쟁·경합 등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아곤은 타자 또는 자기 자신과의 겨룸, 사람들이 함께 겨루는 모임과 장소,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시련과 고난의 감내라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³⁹⁾ 성서적 맥락에서 이 세 의미층은 복음에 근거를 둔 신실한 겨룸과 공동체적 참여,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한 사도적 수고와 고난의 감내로 변용된다.

첫째, 아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신실성을 지키는 싸움으로 변용된다. 신약성서에서 아곤과 그 동사형인 아고니조마이(agonizomai)는 싸움, 경주, 이기기를 다투, 힘쓰고 애쓰를 뜻하며,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복음의 증언을 지속하고 자기 삶을 절제하는 태도를 나타낸다(빌1:30; 딤후4:7; 히12:1; 고전9:25; 눅13:24; 딤펴4:10; 골4:12). 이 싸움은 반대자를 공격하거나 굴복시켜 자기 신념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상징 아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부름받은 싸움”은 보복과 강제, 증오와 폭력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지키고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증언을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다.⁴⁰⁾

39) 고대 그리스 문헌과 근대 정치철학에서 아곤은 경쟁·경연·논쟁·전투·놀이(놀이-축제-의례의 복합 덩어리)·소송 등의 행위와 그 장소를 가리켰으며, 비극에서는 내적 투쟁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표현했다. Henry George Liddell and Robert Scott, *An Intermediate Greek-English Lexic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s.v. “ἀγών”; Gregory Nagy, *The Ancient Greek Hero in 24 Hours*, 우진하 역, 『고대 그리스의 영웅들』(서울: 시그마북스, 2015), 374-375, 442, 886-926; Johan 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이종인 역,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서울: 연암서가, 2023), 85, 157-158, 163-167.

40) Gerhard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이하 TDNT), Vol. 1, trans. and ed.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4), s.vv. “ἀγών” and “ἀγωνίζομαι.”

성서적 아곤은 믿음과 삶을 지키는 싸움과 함께 연약한 자와 억울한 자를 위한 정의를 수행하는 실천과도 연결된다. 이 지점에서 성서적 아곤은 미쉬파트(*mishpat*)의 법적 실천, 곧 억울한 자의 송사를 변론하는 행위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송사 자체를 아곤의 직접적인 성서적 용례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곤이 경기뿐 아니라 법정의 논쟁과 소송을 가리키기도 했다는 점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급게 하지 않고 억울한 자를 위해 변론하라는 성서의 요청은 정의를 위해 말하고 겨루는 변론적 아곤의 구조를 보여준다(신24:17, 27:19; 사1:17; 애3:36).⁴¹⁾ 또한 성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삶을 참된 경건으로 규정한다(약1:27). 따라서 성서적 아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신실성을 지속하며 약자의 권리를 위해 변론하고 정의를 수행하는 경건의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⁴²⁾

둘째, 아곤의 두 번째 층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모임, 그리고 공동의 겨룸에 참여하는 공동체적 차원이다.⁴³⁾ 이는 먼저 사람들을 공동의 싸움과 목표에 ‘참여시키는’ 바울의 아곤 은유에서 구체화된다. 바울의 아곤은 개인적 자기완성의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같은 싸움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사도적 실천이었다(골2:1-2; 빌1:30).⁴⁴⁾ 또한 ‘모임’으로서의 아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연관지을 수 있다. 교회는 아곤 자체를 의미하지

41)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163-167; TDNT 1:135; Liddell and Scott, *Intermediate Greek-English Lexicon*, s.v. “ἀγών.”

42) Victor C. Pfitzner, *Paul and the Agon Motif*, 190.

43) Liddell and Scott, *Intermediate Greek-English Lexicon*, s.v. “ἀγών.”

44) Martin Brändl, *Der Agon bei Paulus: Herkunft und Profil paulinischer Agonmetaphorik*,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2, Reihe 222 (Tübingen: Mohr Siebeck, 2006), 70-71. 바울의 아곤 은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브랜들의 글을 참조하라.

않지만 복음의 증언과 사랑을 목표로 한 아곤이 참여와 연대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공동체적 자리로 이해될 수 있다.

아곤은 또한 본래 “집회의 장소”를 가리켰으나 점차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쟁과 겨룸의 의미가 중심이 되면서 장소적 의미는 약화되었다.⁴⁵⁾ 한편 ‘시장’이나 ‘광장’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 장소를 의미하는 아고라(agona)는 성서에서 놀이와 법적 소송, 공적 논쟁 등 다양한 활동과 아곤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나타난다(마11:16; 눅7:32; 행16:19, 17:17).⁴⁶⁾ 아곤과 아고라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아곤이 본래 지녔던 장소적 의미와 성서에서 아고라가 다양한 아곤이 이루어지는 ‘공적 장소’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을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아곤은 그리스도와 복음, 교회와 타자를 위한 책임을 떠맡고 그에 따르는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는 실천으로 변용된다. 바울의 사도적 아곤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반대와 박해, 염려와 수고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감당하는 헌신과 연결된다.⁴⁷⁾ 이러한 의미는 아곤과 어원적·의미적으로 연결된 아고니아(agonia)에서도 나타난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힘써 기도하신 장면의 “아고니아(이하 아고니)”는 임박한 고난 앞의 “극심한 내적 긴장”과 “힘의 극단적인 집중”을 보여준다(눅22:44).⁴⁸⁾ 이러한 예수의 아고니가 “우리를 위한”(pro nobis) 것이고 사도적 아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는 점에서 신학적 아곤은 타자를 위한 자원적 수고의 성격을 지니며, 사랑과 책임의 수행에 따르는

45) TDNT 1:135.

46) 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and ed. Frederick William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s.v. “ἀγορά”;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102.

47) Victor C. Pfitzner, *Paul and the Agon Motif*, 189; Martin Brändl, *Der Agon bei Paulus*, 71; Walter Bauer, *Greek-English Lexicon*, s.v. “ἀγών.”

48) TDNT 1:140, s.v. “ἀγωνία”; Walter Bauer, *Greek-English Lexicon*, s.v. “ἀγωνία.”

수고와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실천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그리스도인의 아곤”과 “투쟁자들”

그리스도교적 아곤은 폭력과 파괴적 투쟁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절제한 폭력과 강압적 개종을 일삼으며 스스로를 “투쟁자들(아고니스티치)”(*agonistici*)이라 부르던 도나투스파의 과격 집단과 그리스도인의 아곤을 구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아곤』(*De agone Christiano*)을 저술하였다.⁴⁹⁾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타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물리적 투쟁이 아니라, 세상 미혹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인간 본성”(iam triumphantem naturam hominis)에 참여하며 자기 안의 욕망과 죄를 제어하는 신앙적·윤리적 투쟁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몸의 절제”(corpus castigandum)로 설명하였다.⁵⁰⁾ 이는 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세적 재물에 대한 탐욕과 두려움을 비롯하여 타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지”(voluntatem nocendi)까지 다스리는 자기 절제이자 “완전한 이웃 사랑”(caritas perfecta)을 위한 싸움이다.⁵¹⁾ 이러한 교회사적 이해

49) Augustine, “The Christian Combat (*De agone Christiano*),” trans. Robert P. Russell,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A New Translation*, vol. 2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2), 309-310. 아고니스티치(투쟁자들)는 당시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 “치르쿰첼리온”(circumcellions)으로 불리기도 했다; 아곤과 폭력의 관계는 철학적 맥락에서도 다뤄진다. 니체에게 아곤(경쟁)은 “국가사회의 안락”이라는 공동체적 질서 안에서 수행되는 문화적 제도로서 아곤은 경쟁적 충동이 무제한적인 증오와 파괴로 치닫지 않도록 규제하고 그것을 성취감과 공동체적 활력으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이해된다. Friedrich Nietzsche, *Homers Wettkampf*, 이진우 역, 『니체전집 3』(KGW III/2) (서울: 책세상, 2001), 336-339; 아곤을 놀이의 범주로 인식했던 하위징아 역시 상대의 정복과 제가를 목적으로 하는 싸움을 “비아곤적”인 것으로 본다.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189-190.

50) Augustine, *De agone Christiano*, 제1~6, 13항.

51) 위의 책, 제8, 11, 33항. 코놀리의 “아우구스티누스적 유혹”은 다른 신념을 이단과 악으로 규정하는 신앙 내부의 악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아곤』에서 제시된 아곤이 타자를 향한 폭력적 열정에 맞서 자기 절제와 사랑의 책임을 강조하는 싸움이라

는 그리스도교적 아곤이 타자를 해치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 안의 욕망과 타자를 해치려는 의지를 다스리며 이웃 사랑을 지향하는 ‘선한 싸움’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2.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세 형식

앞서 살펴본 그리스도교적 아곤은 복음에 기초한 신실한 겨룸, 같은 싸움과 목표를 향한 공동체적 참여, 타자를 위한 수고와 고난의 감내라는 세 층위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오늘의 갈등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감당해야 할 정치윤리적 책임의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따라 아곤·아곤은 관계적 책임의 형식으로, 아고라·아곤은 공동체적 연대와 참여를 조직하는 형식으로, 아고니·아곤은 타자를 위한 수고와 책임을 감내하는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재구성은 성서적 아곤을 규범적 토대로 삼으면서 코놀리의 정치적 통찰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1) 아곤·아곤: 관계적 책임의 형식

아곤·아곤은 아곤의 경합성을 유지하면서 그 겨룸의 방식과 목적을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재구성한 관계적 책임의 형식이다. 신학적 아곤의 승리는 타자를 이기거나 제압하는 데 있지 않고 갈등과 경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따라서 아곤·아곤은 하나님의 정의와 이웃 사랑에 근거하여 연약한 자의 권리를 변론하고 불의한 행위와 구조에 저항하되(신24:17; 사1:17, 10:1-2; 암5:24; 마22:39), 보복과 증오, 상대의 비인간화가 아니라 타자를 돌보고 살리며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겨룸을 지향한다. 아곤·아곤의 신실함은

는 점에서, 코놀리의 문제의식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아곤 이해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이 존재한다.

싸움의 이유뿐 아니라 싸움의 방식에서도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 아래 코놀리의 “아곤적 존중”은 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아곤·아곤은 신념과 정체성의 차이를 악으로 번역하는 동일성의 정치에 저항하고, 차이를 지닌 타자의 삶과 고통에 대한 “공감”과 공동의 세계에 대한 “애착” 속에서 관계를 지속한다.⁵²⁾ 또한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여 생명과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와 구조에 맞서되, 그 싸움이 르상티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상대의 배제와 제거로 나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욕망과 싸움의 방식을 절제하고, 상호의존 속에서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대함을 실천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는 신앙에 충실하면서 다른 시민들과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다.

2) 아고라·아곤: 공동체적 연대와 참여의 형식

아고라·아곤은 아곤의 장소·모임·참여의 차원을 광장을 의미하는 아고라의 공적 공간과 연결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공동체적 연대와 참여의 형식을 뜻한다. ‘아고라’를 결합한 것은 아곤의 장소적 의미와 신약성서에서 다양한 겨룸이 이루어진 공적 장소로서의 아고라를 연결하기 위해서이다. 아곤의 장소적 의미가 아고라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신약성서의 아고라가 다양한 겨룸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양자의 연결은 그리스도교적 아곤이 수행되는 공적 공간의 차원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⁵³⁾

52) William E. Connolly, *Political Theory and Modernity*, 195-196.

53) Walter Bauer, *Greek-English Lexicon*, s.v. “ἀγορά”; 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102; 아곤의 공간적 차원과 관련하여, 슈리프트는 니체적 아곤을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열린 경쟁을 위한 공적 공유공간”(shared public space)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아곤적 경합이 경쟁자들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그 경합이 지속될 수 있는 공적 공간과도 관련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고라·아곤의 단서가 될 수 있다. Alan D. Schrift, “Nietzschean Agonism and the Subject of Radical Democracy,”

성서적 맥락 속 사도적 아곤은 교회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같은 싸움에 참여하며 공동의 종말론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공동체적 연대와 참여의 형식이다.⁵⁴⁾ 교회는 이러한 아곤에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적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아곤-아곤이 억울한 자를 위해 변론하는 거름이라면, 아고라-아곤은 그러한 거름에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는 장을 형성한다. 그런 점에서 아고라-아곤은 제도와 권력이 외면하고 사회적 관심에서 밀려난 고통을 함께 말하고 책임지며, 타자를 돌보고 살리는 사랑과 연대의 정동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공동체적 참여를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놀리의 “군집의 정치”(politics of swarming)는 아고라-아곤의 연대와 참여를 확장하는 자원으로 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특정 시민들”(specific citizens)은 “교회, 직장, 소비지역, 투자, 대학,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지식과 역량, 전략적 위치를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행위의 장소와 규모를 다각화”할 수 있다.⁵⁵⁾ 모든 시민이 모든 운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러 거점의 시민운동은 정동적으로 공명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고, 흩어진 실천을 더 넓은 공동체적 연대로 연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처럼 흩어진 실천들의 연결이 특정 권력이나 진영을 무비판적

Philosophy Today 45(2001), 156-159.

54) Martin Brändl, *Der Agon bei Paulus*, 70-71.

55) William E. Connolly, *Facing The Planetary: Entangled Humanism and the Politics of Swarm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7), 125-127. 코놀리의 “특정 시민들”은 푸코(Michel Foucault)의 “특정 지식인”(specific intellectual) 개념을 확장한 표현이다. 푸코가 보편적 진리를 대변하는 지식인보다 구체적 폭력과 수탈의 관행을 드러내는 특정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코놀리는 인류세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위치의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적 문제에 개입하는 특정 시민들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으로 방어하고 타자에 대한 분노와 배타적 집단 동일성을 증폭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적대의 공명기계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건은 어떤 고통에 함께 응답하며 어떠한 연대와 정동을 형성하고 확산하는가에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아고라-아곤은 책임 있는 아곤들을 연결하여 외면된 고통과 불의에 함께 응답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참여를 확장하는 다중거점적(multi-sited) 실천으로 정리될 수 있다.

3) 아고니-아곤: 타자를 위한 수고와 책임을 감내하는 형식

아고니-아곤은 아고니와의 연관 속에서 재구성한 해석학적 형식으로, 아곤-아곤, 아고라-아곤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수고, 위협과 고난을 자원하여 감내하는 형식이다. 성서적으로 아고니-아곤은 복음을 위한 싸움의 과정에서 비롯된 고난과 박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감내한 사도적 수고와 연결되고, 예수의 아고니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타자를 향한 자원적 수고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통 자체를 낭만화하거나 억지로 감당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타자에 대한 관계와 책임을 지속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윤리적 수고를 자원하여 감당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 아래 코놀리의 아곤적 존중과 비판적 응답성은 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공존과 연대를 지속하려면 좁혀지지 않는 차이의 불편과 긴장을 감내하면서도 타자와 존중의 관계와 경합을 지속하고, 타자의 질문과 비판에 응답하며 자기 신념의 한계와 배제 가능성을 성찰해야 한다. 아고니-아곤은 타자를 위한 책임을 수행하고 타자의 비판과 자기 성찰·변화의 고통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정치윤리적 형식이다. 이러한 아고니-아곤은 단순히 고통을 인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포함하여 타자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윤리-정치적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

3. 몰트만 정치신학과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신학적 검증

몰트만 정치신학은 그리스도교의 사유와 실천이 이미 정치적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책임성을 타자를 위한 ‘자유의 형태’로 제시하고, 희망의 종말론과 삼위일체론적 십자가 신학에서 그 책임의 변혁적 동력과 자기비판적 기준을 찾는다. 또한 차이와 대립이 아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산출하고 정체성이 차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봄으로써, 신학적 아곤을 해명하는 동시에 코놀리와 대화할 중요한 접점을 제공한다.

1) 몰트만 정치신학의 신학적 자원

아곤을 강조한다고 해서 모든 투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적대와 원한의 정동에 사로잡힐 수 있듯이,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 또한 자기정당화와 동일성 방어의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이 책임 있는 정치윤리적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비판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몰트만의 정치신학은 중요한 신학적 준거를 제공한다.

먼저 몰트만 정치신학의 과제는 그리스도교의 사유와 실천이 이미 정치적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교의 “정치적 자의식”을 일깨우고 그리스도교의 사유와 실천을 “그리스도교화”(Christianize)하는 작업이다.⁵⁶⁾ 이는 그리스도교의 사유와 실천 자체를 복음의 기준에서 비판적으

56) Jürgen Moltmann, *The Politics of Discipleship and Discipleship in Politics: Jürgen Moltmann Lectures in Dialogue with Mennonite Scholars*, ed. Willard M. Swartley (Eugene, OR: Cascade Books, 2006), 35-36; Jürgen Moltmann, 『정치신학 정치윤리』, 6, 63.

로 재정향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치적 책임성은 자신의 사유와 실천이 정치적 효과를 낳고 있음을 자각하는 인식의 책임, 각 시대 속에서 교회의 임무와 상황과 목표를 밝히는 표명의 책임, 그리고 어떤 질서와 권력을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반성의 책임을 포함한다.⁵⁷⁾

몰트만에게 이러한 정치적 책임성은 자유를 통해 보완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자유를 얻은 자들은 “행동 강제”나 “당위적 행동 압박”에서 해방된다.⁵⁸⁾ 이러한 자유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자유, 곧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난을 자원하여 떠맡는 자유이다. 몰트만은 본회퍼의 “타자를 위한 존재”(Für-Andere-Dasein)를 교회의 기본 구조로 해석하면서, 이를 “타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타자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랑”이라는 “자유의 형태”로 설명한다.⁵⁹⁾ 이처럼 사죄의 확신으로 “가벼워진 감각”을 가진 교회는 새로워진 삶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정치적 책임성을 타자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⁶⁰⁾

다음으로 희망의 종말론은 현재의 권력과 제도, 사회적 상식과 교회의 판단이 최종적이지 않음을 드러낸다. 몰트만에게 종말론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일으켜지고 그분으로부터 오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구조이다.⁶¹⁾ 이 희망은 현

57) Jürgen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Ein Beitrag zur messianischen Ekklesiologie*, 이신건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9; Jürgen Moltmann, 『정치신학 정치윤리』, 62-66.

58) Jürgen Moltmann, *Die ersten Freigelassenen der Schöpfung: Versuche über die Freude an der Freiheit und das Wohlgefallen am Spiel*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44.

59) 위의 책, 75.

60) 위의 책, 36-37.

61) Jürgen Moltmann, *Theologie der Hoffnung: Untersuchungen zur Begründung und zu den Konsequenzen einer christlichen Eschatologie*, 이신건 역, 『희망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24.

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고난과 불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재를 타개하고 변혁하도록 이끄는 근거이다.⁶²⁾ 몰트만에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종말론적 미래와 정치적 역사는 단절되지도 동일시되지도 않는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어 놓으신 것”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⁶³⁾ 하나님의 미래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정치적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지만 그 약속의 빛 아래에서 비판되고 변혁될 수 있다. 따라서 희망의 종말론은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을 이중적으로 검증한다. 한편으로는 현재 질서가 만들어 내는 배제와 억압, 고통과 죽음에 저항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실천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못하게 한다. 희망의 종말론은 아곤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면서 동시에 그 자기절대화를 견제하는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론적 십자가 신학은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방식과 중심을 검증한다. 십자가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하나님 자신의 고난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몰트만에게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건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건’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 우리를 위해 성자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은 성부에게도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쳐 무한한 고통을 일으키며,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위해 외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동시에 세계의 재앙을 자기 안에서 내적으로 감당하신다.⁶⁴⁾

따라서 십자가는 단지 경건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사유와 실천이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인지를 판별하는 비판적 준거이다.⁶⁵⁾ 그리스도

62) 위의 책, 24.

63) Jürgen Moltmann, 『정치신학 정치윤리』, 66.

64) 백충현,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46-148; Jürgen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160, 백충현,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148에서 재인용.

교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는 데 머물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상황’에 참여”하는 삶이다.⁶⁶⁾ 십자가에서 아들은 죽음과 아버지의 상실을,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과 상실의 고통을 겪는다.⁶⁷⁾ 이때 성령은 아들의 자기 내어줌을 가능하게 하고 성부와 성자를 결합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시 살게 하는 사랑의 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된다.⁶⁸⁾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세계의 고난을 자기 안에서 감당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새로운 삶과 하나님과 세계의 화해, 새 창조의 미래를 열어 가시는 사건이다.⁶⁹⁾

이러한 십자가는 고통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결속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세계”의 구체적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⁷⁰⁾ 그러므로 십자가는 교회의 투쟁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자기정당화 및 권력욕망을 심판하는 비판적 준거이다. 교회는 타자를 비정상이나 적으로 규정하기에 앞서, 자신의 언어와 실천이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에 참여하며 그들의 치유와 해방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정치적 사유와 실천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준거일 뿐 아니라, 그리

65) Jürgen Moltmann, *The Politics of Discipleship and Discipleship in Politics*, 35-36.

66)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김균진 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396-402.

67) 위의 책, 346-356.

68) 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154; Jürgen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360.

69)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김도훈, 김정형 역, 『몰트만의 신학』(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8), 255-256; Jürgen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396-402.

70) Jürgen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400.

스도교가 고통받는 세계에 참여하며 화해와 새 창조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신학적 근거와 방향을 제공한다.

2) 정체성/차이와 아곤

몰트만에게 그리스도교적 정체성(*Identität*)은 타자와의 관계를 배제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동일화(*identification*)를 통해 타자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⁷¹⁾ 몰트만의 정체성/비정체성(*Identität/Nichtidentität*)에 관한 이해는 코놀리의 정체성/차이 논의와도 제한적인 접점을 갖는다. 코놀리가 정체성이 차이에 의존하면서도 그 차이를 배제하여 자기 동일성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경향을 비판한다면, 몰트만 역시 그리스도교적 정체성을 타자와의 분리 통해 보존되는 폐쇄적 자기 동일성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동일화는 그리스도인을 비동일적인 타자와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로 이끌기 때문이다.⁷²⁾ 더욱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숨어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동일화와 연대의 방향을 규정하기에,⁷³⁾ 그리스도와 동일화는 고통받는 타자와의 연대뿐 아니라 그들을 소외시키는 현실과의 투쟁으로 향하게 한다.

이처럼 차이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이해는 몰트만의 아곤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거리(*Distanz*)와 차이(*Differenz*)가, 결

71) 위의 책, 44-45; 몰트만 저서 중 “*Identität*”를 동일성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놀리의 정체성/차이와의 비교 및 “동일성의 정치”라는 용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몰트만의 “*Identität*”을 문맥에 따라 정체성으로 옮긴다. 직접 인용에서는 번역본의 표현을 따른다.

72) 위의 책, 44-45.

73) Jü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Wege und Formen christlicher Theologie*, 김균진 역, 『신학의 방법과 형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16-317. 몰트만에게 이론의 규범은 실천이며 실천의 규범은 소외된 자들 속에 숨어 현존하는 그리스도이시다.

국에는 모순(*Widerspruch*)이 우리가 다른 것을 인지하는 동시에 그것과 함께 우리 자신의 것을 인지하게 만든다”며, “동일성(*Identität*)을 통하여 통일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성 속에서 통일성이 일어난다”고 말한다.⁷⁴⁾ 곧 차이는 타자를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 그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차이가 서로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서로 다른 것은 상호 보충을 통해 지향될 수 있고, 서로 대립하는 것조차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몰트만은 “투쟁(*agon*)은 만물의 아버지이다”라고 말하며 차이와 대립의 아곤적 관계를 새로운 삶을 산출하는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인 사범으로 이해한다.⁷⁵⁾ 이처럼 몰트만에게 아곤은 차이를 제거하거나 동일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서로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긴장과 투쟁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관계적 사건이다.⁷⁶⁾

3)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신학적 검증

이상의 논의를 통해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은 세 가지 방향에서 검증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연약하고 버림받은 타자를 돌보는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겨룸 역시 타자를 위한 사랑과 책임의 형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개인과 교회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가 “타자를 위한 교회”(Kirche für Andere)라는 본질에 충실하도록 타자의 해

74) 위의 책, 190.

75) 위의 책, 191.

76) 몰트만의 아곤이 현대 정치이론의 아고니즘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정체성을 차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관계의 긴장과 투쟁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코놀리와 접점을 갖는다. 나아가 이러한 몰트만의 아곤 이해는 아고니즘을 신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방을 향한 변화를 추구한다.⁷⁷⁾ 하나님의 미래는 현재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관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결속된 새로운 “하나님의 상황”에 참여하는 삶에서 선취된다.⁷⁸⁾ 셋째, 그리스도교의 모든 정치적 실천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와 권력욕망, 적대와 보복의 가능성을 끊임 없이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검증과 타자를 위한 책임은 당위와 강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가벼워진 감각”과 자발성에서 흘러나오는 “자유의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⁷⁹⁾ 이러한 신학적 기준은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구체적인 정치윤리적 실천으로 전개된다.

IV.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의 정치윤리적 실천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은 앞서 제시한 검증 기준에 비추어 타자 존중, 공적 연대, 자기검증이라는 상호 연관된 정치윤리적 실천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고통받는 세계에 참여하고 화해와 새 창조의 미래를 지향하는 그리스도교의 정치적 책임을 구체화한다.

1. 타자 존중의 아고니즘

타자 존중의 아고니즘은 차이를 지닌 타자와의 좁혀질 수 없는 거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곤적 존중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차이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기존 질서에 비추어 즉각 배제하기보다, “잠정적 수용성”을 견지하면서 자신을 표

77) Jürgen Moltmann, *Die ersten Freigelassenen der Schöpfung*, 75.

78) Jürgen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397.

79) Jürgen Moltmann, *Die ersten Freigelassenen der Schöpfung*, 36-37, 76.

명하는 차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비판적 응답성”을 요청한다.⁸⁰⁾ 그리스도교는 특히 새롭게 등장한 차이를 기존 질서의 기준으로 성급하게 규정하기보다 그들이 호소하는 “억압과 버려짐”의 경험과 자유와 해방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⁸¹⁾ 또한 교회가 당연하게 여겨 온 교리적·규범적 기준과 제도적 관행 가운데 일부가 타자를 규정하거나 배제하고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조건으로 작동해 오지는 않았는지를 성찰하며, 복음에 비추어 유지해야 할 기준과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거나 수정해야 할 기준과 관행을 비판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러한 타자 존중의 아고니즘은 그리스도교의 지속적인 태도와 관계 방식의 변화를 요청한다. 그리스도교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분명히 말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면서도 다른 신념을 지닌 타자들을 자신의 내적 기준만으로 판단하고 배제하여 공동체의 위협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코놀리가 지적한 “아우구스티누스적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삶의 “변화무쌍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타자를 도덕적 결함이나 비정상성으로 번역하려는 “논쟁적(polemical) 유혹”에 맞서야 한다.⁸²⁾ 오히려 “타자와 함께 존재하며”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타자를 위한 사랑의 형태로 나타내는 길이야말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길이자 “교회의 기본 구조”임을 인식해야 한다.⁸³⁾ 이로써 그리스도교는 다른 신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품은 희망의 근거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증언하는 동시에(벧전3:15), 타자를 위해 존재하

80) William E. Connolly, *Identity/Difference*, xxvi-xxix.

81) Jürgen Moltmann, *Die ersten Freigelassenen der Schöpfung*, 75.

82) William E. Connolly, *Identity/Difference*, x, xiv.

83) Jürgen Moltmann, *Die ersten Freigelassenen der Schöpfung*, 75-76.

는 교회의 정체성을 견지할 수 있다.

타자 존중의 아고니즘은 좁혀질 수 없는 차이를 가진 타자를 존중하고 그 관계를 지속할 뿐 아니라, 타자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는 파괴적 행위에 맞서 존중의 질서를 지키는 실천이기도 하다. 연약한 자와 억울한 자의 권리를 위해 변론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성서적 정의의 요청이라면(시82:1~4; 사1:17, 10:1-2; 잠31:8~9; 렘22:3), 그리스도교는 이웃의 생명과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와 구조에 저항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저항이 르상티망과 보복의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동기와 방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정의와 권리의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 그럴 때 아곤·아곤은 적대적 투쟁과 구별되는 관계적 책임의 실천이 된다.

2. 공적 연대의 아고니즘

공적 연대의 아고니즘은 사회적으로 외면된 고통과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억울함을 공동의 책임 문제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응답을 요청하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조직하는 아고라·아곤의 실천이다. 성서적 전통에서 하나님의 백성공동체가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외면하지 말아야 했다면(신24:17, 27:19), 현대사회의 그리스도교 역시 그러해야 한다. 오늘날 이러한 책임은 대의민주주의가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고통과 요구를 공동체가 함께 응답해야 할 문제로 드러내고, 그 응답을 위한 참여와 연대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놀리의 군집의 정치가 보여주듯,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시민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과 폭력, 배제와 원한의 정치를 문제 삼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할 때, 그러한 실천들은 서로 공명하며 더 넓은 공동체적 연대로 이어지고 공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⁸⁴⁾

84) William E. Connolly, *Facing The Planetary*, 125-127.

이러한 공적 연대의 신학적 방향은 몰트만의 “타자를 위한 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몰트만은 교회가 아무도 중보하지 않는 이들을 대변하고 중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역사적으로 선취해야 한다고 보았다.⁸⁵⁾ 하나님의 미래가 굶주림에 맞서는 빵, 억압에 맞서는 자유, 배제에 맞서는 연대, 적대에 맞서는 평화 속에서 역사적으로 선취될 수 있듯이,⁸⁶⁾ 그리스도교의 공적 연대 역시 실질적인 사회적·법적·제도적 응답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현재 고통받는 이웃뿐 아니라 책임의 지연으로 피해를 입게 될 미래세대에게까지 확장된다. 특히 기후위기 앞에서 그리스도교는 현재의 안정과 번영을 절대화하지 않고, 지금 고통받는 이웃과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요청해야 한다.⁸⁷⁾

그러나 모든 모임과 참여가 곧 아고라·아곤인 것은 아니다. 불의와 고통을 공동의 책임 문제로 드러내어 참여와 연대를 조직하는 대신 특정 진영의 분노와 르상티망을 증폭시킨다면, 그 결집은 적대의 공명기제로 변질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아고라·아곤은 신앙 내부의 악을 경계하며 다양한 시민 주체들과 불의와 고통을 공론화하고, 사회적·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다중거점적 참여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는 각자의 자리에서 타자를 위한 이웃이 될 수 있다.

3. 자기검증의 아고니즘

인간의 판단과 실천은 언제나 자기 의와 권력욕망, 이념적 편향에 의해

85) Jürgen Moltmann, *Die ersten Freigelassenen der Schöpfung*, 75.

86) Jürgen Moltmann, 『정치신학 정치윤리』, 244-245, 249.

87) Jürgen Moltmann, *Gerechtigkeit schafft Zukunft: Friedenspolitik und Schöpfungsethik in einer bedrohten Welt*, 안명옥 역, 『정의를 미래를 창조한다: 위기시대를 위한 평화정치와 창조윤리』(왜관: 분도출판사, 1990), 26-33.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저항의 유무만이 아니라 저항이 어떠한 정동에 의해 조직되고, 어떠한 변화를 지향하는가이다. 어떤 저항은 은폐된 고통과 권리 침해를 공적 의제로 드러내고 필요한 제도적 응답을 촉구하지만, 다른 저항은 동일한 사건을 이미 형성된 적대 서사 속으로 흡수하여 공론장을 닫아 버릴 수 있다.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cor curvum in se)을 지닌 인간은 정의를 말하는 순간에도 자기정당화와 적대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⁸⁾ 신앙이 특정 이념과 동일시될 때 이념은 신성화되고 정치적 반대자는 악으로 규정되며, 그리스도교의 모임은 르상티망을 증폭시키는 적대의 공명기계로 변질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사유와 언어, 실천이 르상티망의 정동과 공명하며 적대를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웃 사랑의 공적 책임과 시민적 실천에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검증은 교회의 언어·제도·관행뿐 아니라 경제적 욕망, 정치적 이해관계, 미디어 담론과의 결합까지 살펴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장주의와 정치적 이념편향, 문자주의적·배타적 성경해석, 현실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종말론적 해석, 위계적 권위와 맹목적 순종 등이 서로 결합하고 강화될 때, 신앙은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거나 현실의 고통과 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종교적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예컨대 코놀리의 “복음주의-자본주의 공명기계”는 서로 다른 종교적·경제적 성향의 결합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보여준다. 코놀리에 따르면, 그것의 한쪽은 현재의 “극단적인 경제적 특권의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한쪽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을 준비

88) Martin Luther, *Vorlesung über den Römerbrief 1515/1516*, hg. von J. Ficker, Leipzig, 1925, Dietrich Bonhoeffer, *Akt und Sein: Transzendentalphilosophie und Ontologie in der systematischen Theologie*, 김재진, 정지련 역, 『행위와 존재: 조직신학 내에서의 초월철학과 존재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8에서 재인용.

하기 위해” 각각 지구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킨다”(discount).⁸⁹⁾ 서로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이러한 성향들이 공명하면서 현재 요구되는 긴급한 책임까지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사유와 실천이 이러한 극단적 특권의식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와 결합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적 십자가 신학은 이러한 자기검증의 기준을 제공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투쟁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무기가 아니라 자기정당화와 권력욕망을 심판하는 자리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결속된 신앙은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세계”의 구체적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⁹⁰⁾ 이러한 참여의 책임은 고통받는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세계와 그 미래를 향해서도 열려 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계의 고난을 자기 안에서 감당하시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과 화해의 미래를 열어 가시기 때문이다.⁹¹⁾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언어와 실천이 고통받는 이들과 세계의 현실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타자와 맺는 관계와 현재의 삶의 방식이 그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기검증의 정치적 책임성은 자기비난이나 행동의 강제가 아니라, 위협받는 세계의 현실과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숨어 현존하는 그리스도”와의 “동일화”에서 비롯되는 “자유의 형태”로 나타난다.⁹²⁾

89) William E. Connolly, *Capitalism and Christianity, American Style*, 48-49.

90) Jürgen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12-13, 397, 400.

91) Richard Bauckham, 『몰트만의 신학』, 255-256; Jürgen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349, 354-356, 360.

92) Jürgen Moltmann, *Die ersten Freigelassenen der Schöpfung*, 36-37, 75; Jürgen Moltmann,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 26-33; Jürgen Moltmann, 『신학의 방법과 형식』, 316-317.

나아가 희망의 종말론은 이러한 책임을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확장하고, 자기검증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변화로 이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의 책임을 유예하는 근거가 아니라, 그 약속에 비추어 현재의 삶과 실천을 검증하고 변화시키는 근거이기 때문이다.⁹³⁾ 이로써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언어와 제도, 관행 속에서 악이 작동해 온 경로를 추적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고려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기검증의 아고니즘은 이러한 자기변화의 수고와 고통을 자원하여 감당하는 아고니-아곤의 실천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교는 타자 존중, 공적 연대, 자기검증의 아고니즘을 통해 타자를 배제하는 관계와 기준을 변화시키고, 지연된 정의와 외면된 고통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응답을 요청하며, 교회 자신의 언어와 제도와 관행을 검증하는 책임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다.

V. 나가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적대적으로 조직된 갈등을 관계적 책임에 기초한 경합으로 전환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참여를 조직하며, 그 과정에서 타자를 위한 수고와 책임을 감내하는 정치윤리적 구상으로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코놀리의 아고니즘을 비판적 대화 상대로 삼아 정체성/차이, 신념 내부의 악, 정동과 공명기제를 통해 갈등이 적대로 조직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에 나타난 아곤의 다층적 의미를 관계적 책임의 아곤-아곤, 공동체적 연대와 참여의 아고라-아곤, 타자를 위한 책임을 감내하는 아고니-아곤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아곤을 강조한다고 해서 모든 갈등과 투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

93) Jürgen Moltmann, 『희망의 신학』, 24.

다. 이에 본 연구는 몰트만 정치신학의 정치적 책임성, 희망의 종말론, 삼위일체론적 십자가 신학을 신학적 준거로 삼아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은 연약하고 버림받은 타자를 돌보는 사랑과 책임으로 수행되고,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타자의 해방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변화에 참여하며,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와 권력욕망, 적대와 보복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실천이 당위나 강제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비롯된 자발적인 “자유의 형태”로 수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검증을 거쳐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은 타자 존중, 공적 연대, 자기검증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었다. 타자 존중은 차이를 지닌 타자와 책임 있게 경합하는 실천이고, 공적 연대는 외면된 고통과 지연된 정의에 대한 공동체적 참여와 연대를 조직하는 실천이며, 자기검증은 타자의 질문과 비판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사유와 실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변화의 수고를 감당하는 실천이다.

요컨대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은 자신의 신앙에 신실하면서도 타자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 있게 경합하며, 적대와 원한의 공명에 맞서 존중과 연대의 공명을 형성하는 공동체적 참여를 통해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요청되는 비판과 변화를 감당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공적 책임과 시민적 실천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하나의 신앙공동체인 그리스도교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적대적으로 증폭시키지 않고, 대안적·긍정적 공명기제를 형성하며 다른 시민 집단들과 함께 살아가는 책임 있는 이웃으로 존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도훈. “니체주의적 경합적 민주주의는 상탈 무폐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시대와 철학」 34/4(2023), 45-77.
- 이사도.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Agonism)을 기반으로 한 정치신학의 재구성 - 무폐, 코놀리, 몰트만의 사상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 이상엽. “니체와 아곤의 교육.” 「철학논총」 73/3(2013), 213-237.
- 백충현.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Keller, Catherine. “Spiritual Foundations of One World.” Contribution to GTI Forum “Can Human Solidarity Globalize?” Great Transition Initiative, August 2021.
- Augustine. “The Christian Combat (*De agone Christiano*).” Trans. Robert P. Russell.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A New Translation*. Vol. 2.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47. First paperback reprint, 2002.
- Bauckham, Richard.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김도훈, 김정형 역. 『몰트만의 신학』. 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8.
- Bauer, Walt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Ed. Frederick William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onhoeffer, Dietrich. *Akt und Sein: Transzendentalphilosophie und Ontologie in der systematischen Theologie*. 김재진, 정지련 역. 『행위와 존재: 조직신학 내에서의 초월철학과 존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Brändl, Martin. *Der Agon bei Paulus: Herkunft und Profil paulinischer Agonmetaphorik*.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2. Reihe 222. Tübingen: Mohr Siebeck, 2006.
- Connolly, William E. *Aspirational Fascism: The Struggle for Multifaceted Democracy under Trump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7.

- _____. *Capitalism and Christianity, American Styl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 _____. *Facing the Planetary: Entangled Humanism and the Politics of Swarm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7.
- _____. *Identity/Difference: Democratic Negotiations of Political Paradox*.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 _____. *Plur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Political Theory and Modernity*. 2nd e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The Augustinian Imperative: A Reflection on the Politics of Morality*. 2nd ed.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 _____. *The Terms of Political Discourse*. 2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 Huizinga, Johan, *Homo Ludens*. 이종인 역.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서울: 연암서가, 2023.
- Keller, Catherine, *Political Theology of the Earth: Our Planetary Emergency and the Struggle for a New Public*. 박일준 역. 『지구정치신학: 지구적 비상 사태와 새로운 생태신학의 전환점을 위한 투쟁』.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2020.
- Kittel, Gerhard,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4.
- Liddell, Henry George, and Robert Scott. *An Intermediate Greek-English Lexic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Moltmann, Jürgen, *Der gekreuzigte Gott: 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김균진 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 _____. *Die ersten Freigelassenen der Schöpfung: Versuche über die Freude an der Freiheit und das Wohlgefallen am Spiel*.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 _____. *Gerechtigkeit schafft Zukunft: Friedenspolitik und Schöpfungsethik in einer bedrohten Welt*. 안명옥 역. 『정의를 미래를 창조한다: 위기시대를 위한

평화정치와 창조윤리』, 왜관: 분도출판사, 1990.

_____.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Ein Beitrag zur messianischen Ekklesiologie*. 이신진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_____. *Politische Theologie-Politische Ethik*. 박종화 역. 『정치신학 정치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_____. *The Politics of Discipleship and Discipleship in Politics: Jürgen Moltmann Lectures in Dialogue with Mennonite Scholars*. Ed. Willard M. Swartley. Eugene, OR: Cascade Books, 2006.

_____. *Theologie der Hoffnung: Untersuchungen zur Begründung und zu den Konsequenzen einer christlichen Eschatologie*. 이신진 역. 『희망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_____.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Wege und Formen christlicher Theologie*. 김균진 역. 『신학의 방법과 형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Nietzsche, Friedrich, *Homers Wettkampf*. 이진우 역. 『니체전집 3』, KGW III/2, 서울: 책세상, 2001.

_____. *Thus Spoke Zarathustra*.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1966.

Pfitzner, Victor C. *Paul and the Agon Motif: Traditional Athletic Imagery in the Pauline Literature*. Novum Testamentum, Supplements 16. Leiden, Netherlands: E. J. Brill, 1967.

Schrift, Alan D. "Nietzschean agonism and the subject of radical democracy." *Philosophy Today* 45, supplement (2001), 153-163.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시사영어사/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편찬위원회 편. 『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1991.

Wenman, Mark. "An ethos of agonistic respect: William E. Connolly." In *Agonistic Democracy: Constituent Power in the Era of Globalisation*, 99-13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논문투고일: 2026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6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6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현대 갈등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공적·정치적 책임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정치윤리적 모델로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을 제안한다. 코놀리의 아고니즘을 비판적 대화 상대로 삼아 정체성/차이, 신념 내부의 악, 정동과 공명기계를 통해 갈등이 적대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그리스어 아곤(*agon*)의 다층적 의미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은 타자와 책임 있게 경합하는 아곤-아곤, 공적 연대와 참여의 아고라-아곤, 타자를 위한 고난과 자기검증을 감당하는 아고니-아곤으로 구성된다. 이 세 형식을 몰트만의 정치적 책임성, 희망의 종말론, 삼위일체론적 십자가 신학으로 검증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자기 신앙에 신실하면서 책임 있는 이웃으로 존재하기 위한 정치윤리를 제안한다.

주제어: 그리스도교적 아고니즘, 정치윤리, 아곤적 존중, 공명기계, 자기검증
